역전사효소 저해제

역전사효소 저해제는 비핵산 계열의 에이즈치료제로 임상실험 단계에 있는 제품이다.
현재는 에이즈치료제의 핵심부분인 체내 흡수율에 대한 임상실험 및 돌연변이 등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역전사효소 저해제는 내성발현이 문제시되고 있어 임상시험단계에서 일부기업이 포기하고 있으나 기존 핵산계열의 AZT 등에 비해 월등한 약효를 나타냈고 병용화학요법시 AIDS바이러스의 약재내성 극복에도 효과가 높아 기대되고 있다.
실제로 Boeringer-Ingelheim은 93년 대표적인 비핵산유도체인 Nevirapine을 개발했으나, 임상단계에서 내성발현으로 개발을 포기했고 Merck 및 Upjohn 등도 같은 이유로 연구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비핵산 계열의 에이즈치료제 중 임상단계에 있는 것은 Upjohn의 벨라비리딘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90년대들어 역전사효소 저해제의 문제가 드러남에 따라 세계 제약기업들은 새롭게 단백질분해효소 저해제쪽으로 연구방향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oche는 RO318959라는 단백질분해효소 저해제를 개발해 3단계 개발에 접어들고 있으며 Merck와 Vortex도 동일계통의 L735524, VB11478이라는 신물질을 각각 개발해 임상시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SKI가 역전사효소 저해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외에 LG화학 · 종근당 · 화학연구소 등 3~4개기업이 연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업 및 연구소 중 LG화학만이 제3대인 단백질분해 효소 저해제를 연구하고 있으며 나머지 기업은 역전사효소 저해제를 연구 목표로 하고 있다.

< 96 화학연감>